

클래식 발레작품에서 표상되는 노인 이미지

「코펠리아 *Coppelia*」의 코펠리우스(Coppelius)와 「호두까기 인형 *The Nutcracker*」의 드리셀마이어(Drosselmeyer)를 중심으로

김 주 희*

- | | |
|---|----------|
| I. 서론 | IV. 결론 |
| II. 노인에 대한 모순된 인식 | 참고문헌 |
| III. 「코펠리아 <i>Coppelia</i> 」와 「호두까기 인형 <i>The Nutcracker</i> 」에 나타나는 노인 이미지 | Abstract |

I. 서론

세르게이 프로코피예프(Sergei Prokofiev)의 발레작품 「석화 *The Stone Flower*」의 나무조각가 역으로 영국의 88세 존 로우(John Lowe)가 데뷔한 소식은 흥미로운 해외토픽 뉴스로 관심을 받았다.¹⁾ 그가 94세가 되었을 때에도 ‘할아버지 발레리노’로 국내 TV 프로그램에 다시 소개되면서 그의 발레 활동은 또 다시 화젯거리가 되었다. 왜 이렇게 그의 발레 공연이 이슈가 될까? 아마도 전문 발레 공연에서 노인이 출연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고, 노인 배역이 있다하더라도 실제로 노인이 출연하기 보다는 노인분장을 한 젊은 무용수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보면 클래식 발레 작품 중에 노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룬 레파토리를 쉽게 찾기가 어려워 무용대본은 캐릭터의 나이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다. 결혼을 앞둔 왕자나 공주와 같은 주인공의 부모 역할 정도가 다른 캐릭터에 비해 나이 많을 것이라 짐작 할 뿐이다. 역할의 연령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배역에 비해 나이가 많으며 작품의 이야기를 이끄는 주요인물이 아닌 배경에 지나지 않는 주변인물로 출연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고난위도의 화려한 테크닉을 보여주기 보다는 천천히 걸어 나와 손 흔들며 인사하거나 도란도란 대화하는 것이 주된 동작이다. 또한 주인공 무용수들은 관객의 시선을 가장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무대 중앙에서 춤을 추지만, 나이가 많은 역할들은 무대 가장자리에 위치한 의자에 앉아서 다른 무용수들의 춤을 바라만 보고

* 성균관대학교 하이브리드미레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sunjang33@gmail.com

1) 정재영(2008.1.14.), 나는야 88세 발레리노! 영국 로우 할아버지, 생애 첫 발레공연,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8/01/14/20080114000491.html, 2016.4.30.>.

있거나 무대나 이야기 흐름,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한다.

하지만 노인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각 학문 분야에서 뿐 아니라 무용학에서도 노인과 관련된 연구는 800건 이상 선행될 정도로 관심이 높다. 이들의 연구를 들여다보면 노인 무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용 가치를 증명하거나 무용 동작을 이용하여 노인질환의 증세가 호전되는 것을 측정하는 실험연구나 삶의 만족도, 삶의 질 개선 등을 살펴보는 실증 연구가 대부분이다. 노인과 관련한 무용학 연구가 상당히 많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과 관련한 공연예술전문공연과 인문학적 시각을 연결한 논의는 실증연구에 비해 낮게 시도되어 있다. 일반적인 노인과 관련한 예술 분야의 인문학적 접근은 문정은(2010)의 컴퓨터 그래픽스를 활용한 노인 캐릭터 분장 연구와 박영택(2012)의 한국미술 속에서 노인 이미지를 살펴 본 연구, 한국영화 속의 노인 이미지를 분석한 남영우(2013)의 연구 등이 있다. 이들의 연구는 시각적 이미지 연출의 관점에서 노인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신체의 풍부한 표현이 요구되는 전문 발레공연 안에서 노인의 신체움직임을 어떠한 방식으로 배치하는가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서양노인문화사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알아보고, 클래식 발레작품 안에 투영된 노인 이미지를 살펴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노인 이미지를 논의 하는데 있어 팻 테인(Pat Thane)의 『노년의 역사 *The Long History of Old Ages*』와 조르주 미누아(Georges Minois)의 『노년의 역사 *Histoire de la vieillesse*』를 참고하여, 「코펠리아 *Coppelia*」²⁾의 코펠리우스(Coppelius)와 「호두까기 인형 *The Nutcracker*」³⁾의 드러셀마이어(Drosselmeyer)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발레에서의 노인을 논의하는데 있어 서양노인문화사에 근거를 둔 이유는 발레라는 장르가 유럽사회를 기반으로 생성, 발전되어온 만큼 발레작품 안에서의 노인 이미지를 분석하는데 있어 서양의 노인문화사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자료들의 경우 계보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노인을 조망하고 있어 인식의 변화 체계를 이해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코펠리아」와 「호두까기 인형」을 선정할 이유는 무용단에 따라 코펠리우스는 과학자, 장난감 만드는 장인, 장난감상점 주인, 딸을 갖고 싶어 하는 아버지 등으로, 드러셀마이어는 삼촌, 대부, 마술사, 성직자, 판사, 장난감제조자, 동화 읽어주는 할아버지 등의 다른 캐릭터로 각색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다른 역할에 비해 나이가 월등히 많은 인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낸시 레이놀드·수잔 레이머-톤(Nancy Reynolds · Susan Reimer-Torn)은 수많은 발레작품 중에서 그 어떤

2) 낭만주의 발레의 마지막 작품이자 최고의 희극 발레 「코펠리아」는 독일의 작곡가 호프만(E. T. A. Hoffmann)의 원작 단편소설 『모래인간 *Der Sandmann*』(1816)을 샤를 루이 에티엔느 누이테르(Charles-Louis-Étienne Nutter)가 각색하고, 생 레옹(Saint-Léon)이 안무하였다. 1870년 5월 25일 파리오페라발레단에 의해 파리오페라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마리우스 피티파(Marius Petipa)가 재구성하여 1884년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서 공연된 것이 오늘날 흔히 공연되어지고 있다. 러시아 10혁명으로 인해 무용가이자 안무 기록자였던 니콜라스 세르게이(Nicholas Sergeyev)가 무용 기록보를 갖고 망명하면서 유럽에 소개되었다. 「코펠리아」의 줄거리는 장난감 제조자인 코펠리우스 박사가 코펠리아를 만들고, 마을 청년 프란츠는 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하자 이 사실을 안 프란츠의 약혼녀 스와닐다가 찾아온다. 스와닐다는 그녀가 태엽 인형임을 알게 되자 박사를 골탕 먹이기 위해 자신이 코펠리아로 변장한다. 결국 스와닐다의 정체를 밝혀지고 프란츠와 결혼 한다는 이야기이다.

3) 「호두까기 인형」또한 호프만의 『호두까기 인형과 쥐의 왕』을 각색한 것으로, 마리우스 피티파가 대본을 쓰고 레브 이바노프(Lev Ivanov)가 안무를 맡아 1892년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이 작품은 주인공인 클라라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드러셀마이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호두까기 인형을 받으면서 시작된다. 그날 밤 잠이 든 클라라가 꿈을 꾸는데, 꿈에서 쥐들이 나타나자 호두까기 인형이 클라라를 지켜주고, 호두까기 인형은 왕자로 변해 클라라와 함께 환상의 나라로 여행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갖고 있다.

역할보다도 코펠리우스와 드리셀마이어가 성격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캐릭터 강한 인물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분석에 용이함을 지니고 있다.⁴⁾ 이 외에도 클래식 발레 작품 중 노인 역할은 「라 실피드 *La Sylphide*」의 늙은 점쟁이 매지(Madge)와 「잠자는 숲 속의 미녀 *The Sleeping Beauty*」의 늙은 마녀 카라보스(Carabose) 등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노인을 바라보는 이면적인 측면을 논의하는데 있어 서양문화사 안에서 부정적 인식의 상징이었던 ‘마녀’와 같은 여성 노인 보다는 남성 노인이 더욱 적합하다 사료된다.

논문을 구성함에 있어 먼저 노인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고, 고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노인을 바라보는 이중적 시선과 문학, 그림, 연극에서 나타나는 늙은 노인의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클래식발레 작품 안에서의 노인 이미지를 논의하기 위해 신체움직임과 역할로 나눠 코펠리우스와 드리셀마이어를 분석하였다. 신체의 기술적 움직임의 기반을 하는 특성상 클래식 발레 작품에 출연하는 노인은 실제노인이 아닌 젊은 무용수가 노인역할을 대신한 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점을 갖고 있지만, 노인역할을 수행하는 무용수의 움직임과 의상, 분장 등이 바로 노인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가 그대로 함의하여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II. 노인에 대한 모순된 인식

1. 노인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

노인에 관한 관심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노인의 기준은 무엇일까? 사실 노인의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으며, 노인의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았다. 켈트족과 게르만족의 관습은 아버지가 신체적으로 존경받을 수 없게 되는 순간 그의 권위에 중지부를 찍었다. 특히 가난한 노인에게 자발적인 은퇴란 불가능했다. 19세기가 되기까지 은퇴생활은 특권 계층의 전유물이었다. 가난한 자는 힘이 닿는 한 일을 계속해야 했고, 더 이상 신체가 노동의 능력을 지니지 못할 때 은퇴할 수 있었다.⁵⁾

본격적으로 노인 기준 나이가 정해지는 계기는 19세기 독일 재상 비스마르크가 노령연금을 도입하기 시작하면서 65세를 수급 연령으로 지정하면서 부터가 되었다. 19세기말 20세기 초 이래로 법정 퇴직 및 연금제도가 널리 확산됨에 따라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였던 노인은 서서히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1950년대 들어서자 유엔(UN)은 독일이 정한 65세 노인 기준을 참고하였고, 현재 우리나라 뿐 아니라 유엔 가입국 대부분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복지, 의료 정책 등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⁶⁾

오늘날 선진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됨으로써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리처드 허그만(Richard Hugma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1/3미만만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전문적인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할 정도로 노쇠한 상태에 있다고 말한다.⁷⁾

4) 낸시 레이놀드·수잔 레이머-톤(1980), 『발레와 현대무용 안무가와 그 작품』, 장정윤·이진수(역)(서울: 교학연구사, 1986), p.82.

5) 조르주 미누아(1987), 『노년의 역사』, 박규현·김소라(역)(서울: 아모르문디, 2010), p.263.

6) 남영우(2013), 한국영화 속 노인 이미지 분석: 2000년부터 2010년까지를 중심으로, 연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5; 조재욱·황진수(2010), 재인용.

7) 질 벨런타인(2001), 『공간에 비친 사회, 사회를 읽는 공간』, 박경환(역)(서울: 한올아카데미, 2014), pp.76-78.

그레이엄 롤스(Graham Rowles)는 노인의 신체 상태에 따라 노인의 기준을 ‘늙은 노인(old old)’과 ‘젊은 노인(young old)’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늙은 노인’은 신체적으로 노쇠해 움직임이 고립되어 있는 정도이며, ‘젊은 노인’은 이동성과 기민성으로 인접한 공동체 너머의 자원에까지 접근 가능한 신체 를 갖춘 노인이다.⁸⁾

노인에 대한 표상에 대해 팻 테인(2012)과 조르주 미누아(2010) 등과 같은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대한 상반된 두 시선이 존재했다고 지적한다. 노인에 대한 전통적인 표상은 지혜를 갖춘 경험자로써의 노인이다. 지식과 지혜의 담지자이자 교육자, 재판관, 중재자, 주술사 등과 같은 노련하고 비범한 인물로 묘사되는 시선이다.⁹⁾ 이런 노인은 기억과 관습, 구전문화 등을 통해 미화되어 만들어지고 숭상된다. 노인에 대한 또 다른 표상은 추하고 허영이 가득한 거추장스러운 존재이다. 특히 가난한 노인은 인간 이하의 쓸모없는 존재이자 가혹한 운명이었으며, 병든 노인은 무기력하고 무용지물의 잉여인간일 뿐이다.¹⁰⁾ 흥미로운 지점은 고려장(高麗葬)과도 같은 장례 형태가 서양에서도 비슷하게 존재했으며, 중세 이후 부유한 도시민이 확대되자 지금의 연금과 같은 제도인 코로디(Corrody)가 수도원에서 공공연하게 매매되었다는 점이다. 결국 전통적으로 부유하고 교양있는 건강한 노인만이 이상적인 노인상임을 알 수 있다. 질 벨런타인(2014)은 서구역사에서 노인의 신체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까닭에 가치화되지 못하였으며, 재생산 연령이 지났기 때문에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가치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낙인 찍혀 있음을 지적한다.

2. 늙은 몸에 대한 양면적 이미지

서양문화에서 노인의 대한 묘사는 문학작품과 그림, 조각에 잘 나타나 있는데, 주로 노인에 대한 표상은 하얗게 샌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살, 딱딱하고 늘어진 피부, 굵은 등, 흰 다리, 뒤통거리는 이상한 걸음걸이, 괴팍한 성격, 탁하고 신 목소리, 거친 살갓 등이다. 노인에게 대한 표상들이 대부분 부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백발은 또 다른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한다. 백발의 노인은 존경스러운 성격과 그의 영혼이 순결하며, 역설적으로 진정한 젊음과 순진무구함의 표시이기도 하다.¹¹⁾

조르주 미누아(1955)는 문학작품에서 노인을 묘사하는데 있어 불쌍하고 슬픈 모습에다 연로한 나이에 주로 하게 되는 몇 가지 실수를 강조하여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덧붙였다고 지적한다. 노인과 노파는 수세기를 두고 희극 예술의 모든 묘사에서 조롱의 대상이었으며, 신체 쇠약까지 동반하여 웃음거리로 만들기 쉬운 대상이었다.¹²⁾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 중 하나인 『뜻대로 하세요(As You Like It)』에 등장하는 자크의 대사는 노인의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콧등에 안경을 걸치고, ...젊은 시절 아껴두었던 홀태바지가 시든 정강이에는 너무나 넓다. 사내다운 우렁찬 목소리는 어림도 목소리로 되돌아가 뻑뻑거리는 피리 소리를 낸다 ...이는 빠지고, 눈은 멀고, 입맛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라고 쓰여져 있다.¹³⁾ 그리스 문학에서도 노인의 추함, 고통스러움, 사회의 멸시 같은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8) Graham Rowles(1983).

9) 성백용(2009), 노년(老年)의 사회·문화사: 중세의 노년에 관한 몇 가지 시각과 문제들, 『서양중세사연구』 59, p.92.

10) 앞의 책, p. 92.

11) 조르주 미누아(1987), p.231.

12) 앞의 책, pp.114-115.

13) 앞의 책.

데 노년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당시의 인식을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그리스 시인 테오그니스(Theognis)는 “나에게 닥친 불행이라니! 불행이라니! 오, 청춘이여! 오, 모든 것을 변질시키는 노년이여! 노년은 다가오고 청춘은 멀어지는구나!”라고 하였다.¹⁴⁾ 유럽과 마찬가지로 고대 이집트에서도 제5대 파라오 왕조의 재상 프타호테프가 “노인의 종말은 비참하구나! 노인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진다. 시력은 나빠지고, 귀는 먹고, 힘은 약해지고, 마음은 설 곳이 없다. 입은 조용해져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지적능력은 떨어져 오늘과 어제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된다. 온 뼈마디가 아프다. 예전에 기꺼이 했던 일을 힘들이지 않고는 할 수가 없으며, 미각도 사라진다. 노쇠는 인간을 괴롭히는 불행 중 가장 참혹한 것이다”라고 말한 기록이 있다.¹⁵⁾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보았을 때 늙음에 대한 저주와 경멸의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대 서양의 그림이나 조각품을 관찰해 보면 아름답고 건강함을 표현하는데 있어 노화의 과정이나 늙고 시들고 죽어가는 것 보다는 젊은이의 탄력 있는 근육과 관능적인 가슴, 엉덩이를 강조하여 묘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젊은이의 몸이야말로 다른 어떤 몸보다도 생명력에 충만한 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간혹 등장하는 노인상은 초상으로 기록 될 뿐이며, 그 모습은 정적이고 늘어진 무기력한 몸으로 그려질 뿐이다.¹⁶⁾ 기원전 2700년 이집트의 상형문자에는 ‘늙은이’와 ‘늙어 가다’라는 단어를 지팡이에 몸을 기대 구부정한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¹⁷⁾ 이러한 것을 미루어 볼 때 노인에 대한 기표가 결국 의지하고, 기대고, 구부정한 신체 즉, 일반적 신체와는 구분되는 신체였음을 알 수 있다.

미술에서도 사실주의 화풍이 대두되면서 늙은 몸이 비로소 본격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하는데, 노인에 대한 표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도 그 속에 작가의 감정을 개입시키는 방식이었다. 초라하게 늙어버린 노인의 모습은 주름이 깊게 파이고,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거나 무심함이 교차하고 있는 달관한 표정과 함께 늘어지고 시든 젖가슴, 골이 패인 이마, 닭발처럼 주름지고 갈라진 손, 주름으로 가득 찬 피부, 침울하지만 상념에 잠긴 표정은 굴곡 심한 노인의 삶의 애환을 반영한다.¹⁸⁾ 현대에 들어서자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망을 지닌 존재임을 새삼 인식하도록 역설적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노인의 몸은 이렇게 표상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¹⁹⁾

공연예술에서의 신체는 의미전달을 위해 신체가 하나하나가 언어로 관객에게 전달된다. 특히 눈짓, 눈빛, 몸짓, 몸 방향, 손 제스처, 얼굴표정, 몸 움직임과 같은 신체 동작들은 이미지를 대신할 뿐 아니라 그 역할의 성격과 특징, 스토리의 전개를 드러내주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그 예로 아서 밀러(Arthur Miller)의 「세일즈맨의 죽음 *Death of a Salesman*」이 있다. 이 극에서 외판원 윌리 로먼은 퇴직을 앞두고 있는 노인이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했던 그는 직장과 가정에서 원만한 소통을 하지 못하자 결국 자살을 선택하게 된다는 내용을 갖고 있다. 이 작품에서 표상되는 노인은 경제적 활동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근대적 가치관으로 인해 젊은 세대들과 갈등하며, 자신도 모르게 사회적으로 위축되면서 깊어지는 우울증을 지니고 있다. 이들의 신체 움직임은 공통적으로 급격한 감정의 기복으로 갑

14) 앞의 책, pp.108-109.

15) 앞의 책, p.56; James B. Pritchar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ed.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55, p.412, 재인용.

16) 박영택(2012), 한국 미술 속에 재현된 노인이미지, 『시민인문학』 22, p.2.

17) 조르주 미누아(1987), p.57.

18) 박영택(2012), pp.11-12.

19) 앞의 책, p.11.

작스럽게 확장되었다가 다시 빠르게 축소되는 경향으로 표현된다. 또한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하지 못하고, 축 처진 어깨와 몸통을 숙여서 이들의 심리상태를 표현한다. 결국 예술장에서 노인의 신체 이미지는 대부분 지능적이거나 이성적인 의미를 갖지 못하며, 성적 매력이나 육체적 건강함을 상실한 존재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코펠리아 *Coppelia*」와 「호두까기 인형 *The Nutcracker*」에 나타나는 노인 이미지

1. 신체 움직임

가. 코펠리우스(Coppelius)의 신체움직임

1막, 코펠리우스의 등장은 어둠 속에서 비틀거리며 걷는 걸음으로 시작된다. 다리를 휘청거리면서 열쇠를 미친 듯이 찾는 모습과 시종일관 경박스럽게 어깨를 들썩거리며 엉거주춤한 자세의 오종종한 걸음 걸이를 갖고 있다. 그의 신체는 구부정한 어깨와 허리를 갖고 있어 남자무용수들이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곧은 몸자세나 파드뒤 테크닉과 같은 움직임을 찾아 볼 수 없다. 게다가 별벌 떠는 손과 관절이 불편한 듯 무릎을 만지고, 허리를 반복적으로 두드리는 것을 미뤄 보았을 때 신경통과 같은 병을 앓고 있음을 짐작하게 만든다.

코펠리우스가 입은 의상은 금색이나 세련된 의상이 아닌 어두운 계열의 시대에 뒤떨어진 촌스러운 옷과 그 위에 작업 앞치마를 두르고 있다. 마이에미 시티 발레단(Miami city ballet) 무용단 홈페이지는 공연홍보 영상으로 코펠리우스역을 맡은 솔리스트 디디어 브라마(Didier Bramaz)의 분장과정을 보여주는데, 늙은 노인을 만들어내기 위해 하얗게 샌 머리카락과 눈썹, 어두운 얼굴 톤의 화장, 이마와 미간, 윗가, 턱, 눈가에 깊은 주름 선을 중점적으로 메이크업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준다. 빗질을 하지 않아 이리저리 뻗친 헝클어진 백발머리와 두껍고 동그란 안경이 괴짜스러운 면모를 보다 확장시켜 준다.

2막에서는 그의 음침한 작업실을 보여준다.²⁰⁾ 이것은 공간을 통해 노인의 어두운 공간과 밝은 조명의 마을 색을 대비시킴으로써 외골수적이고, 소통하지 않는 그의 상황을 대변시키고 있다. 즉 공간에서부터 노인-어둠-허름함-폐쇄된 공간/젊음-밝음-생동감-열린 공간으로 구분지어 노인의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코펠리우스의 공간은 열쇠로 열어야 열리는 공간으로 아무도 들어 올 수 없는 고립된 공간인 반면에 다른 공간들은 마을사람들이 축제를 열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소인 것이다. 공간조명의 조명과 공간 이미지를 통해 인물들의 성격을 구분시키고 있는 것이다.

코펠리아가 살아 움직임 때 코펠리우스의 표정은 깜짝 놀라고, 동그랗게 뜬 눈으로 당황하는 표정을 과장되게 드러낸다. 지팡이를 지탱하며 겨우겨우 움직이는 그가 프란츠가 창문을 넘어오거나 스와닐다와 동네 처녀들이 그의 작업실로 들어오자 쫓아내려 안간 힘을 쓰고 엉뚱한 방향을 찾아 한 템포 늦게 움직이는 행동을 한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웃음을 자아내는 코메디적 인물의 이미지로 고착된다. 코메

20) 앞의 책, p.99

디 발레 작품들이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기 보다는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재미요소를 배치하기 위해 비범한 인물, 특권의 소지자, 고대의 영웅, 신의 영역을 다루기보다는 평범한 인간의 소박함을 담기 위해 지방색이 드러나는 인물들이나 익살꾼과 같은 역할들이 등장하는데, 결국 다른 클래식 발레에 비해 노인역할의 비중이 많은 「코펠리아」에서 코믹의 요소를 노인이 담당했음에 주목해야 한다.

나. 드러셀마이어(Drosselmeyer)의 신체움직임

드러셀마이어는 극의 중요한 흐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펠리우스와 마찬가지로 화려한 동작이나 테크닉을 구사하지 않고, 간단한 움직임과 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코펠리우스의 경박하고 우둔해 보이는 등장모습과는 반대로 위엄있는 모습으로 등장하며, 음악 또한 그가 등장하자 장중한 음악으로 바뀐다. 클라라의 부모와 파티에 참여한 어른들도 그가 등장하자 정중한 인사로 경의를 표한다. 코펠리우스의 행동은 비웃음을 자아내고, 스와닐다가 그를 골탕먹여줌으로써 코믹적 요소를 유발하지만 드러셀마이어의 경우 그가 나타나자 클라라와 아이들은 기뻐하며 그의 품에 달려가 안기고 시종일관 그를 쫓아다닌다. 드러셀마이어가 마술을 보여주거나 장난감을 꺼낼 때에는 그의 주변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행동에 주목한다.

드러셀마이어가 그 공간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호두까기 인형」 공연에 있어 상징이 되는 큰 크리스마스 트리 위치하고 있는 중앙 앞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파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몸 방향과 시선은 그를 향해 있다. 그가 무대 중앙에 위치하여 호두까기 인형의 사용법을 알려줄 때 그에 대한 관심은 최고조로 집중된다. 다소 과장적이며 복합적인 캐릭터를 지닌 드러셀마이어의 행위에 대해 노영재(2010)는 환상 속 장면이 다양하게 펼쳐질 2막을 그의 과장적인 행동을 통해 암시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한다.²¹⁾ 극의 전반에 배치된 코펠리우스와 달리 드러셀마이어의 경우 1막으로 그 역할이 한정되지만, 2막을 연결하는 모티브의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그의 퇴장에 대해 클라라와 파티에 참여한 모두가 아쉬워하는 존재인 것이다.

2. 역할

가. 코펠리우스(Coppelius)의 역할

「코펠리아」에서 코펠리우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사건의 제공자이자 관계 형성의 매개자이다. 여러 무용단에서 코펠리우스를 개성있는 인물로 다양하게 연출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늙은 과학자 혹은 장난감 만드는 노인으로 직업을 구성하고 있으며, 왕성하게 일한 결과물이 바로 코펠리아이다. 앞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양노인문화사에서는 노동력의 가능 여부에 따라 신분과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데 그의 소득 수준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당시 낭만발레가 유행하던 19세기는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인해 인식적 체계가 급격하게 바뀌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던 때이다. 당시 사람들에게 과학은 변화를 가져오는 낯선 것이었으며, 과학자는 당시로는 낯선 기계를 만들어내는 이상한 사람으로 인식 된 것이다. 그 이상함은 조급한 움직임, 경박스러운 제스처로 구분되며, ‘박사’라는 호칭을 통해 일반적이지 않는 기술력과 지적 수준을 갖춘 존재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코펠리

21) 노영재(2010), 발레 「호두까기 인형」의 변천에 따른 사회문화적 의미, 『무용예술학연구』 29, p.14.

우스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경계는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그대로 투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코펠리우스는 완벽한 인간의 모습을 갖춘 아름다운 코펠리아를 만들어냄으로써 사건의 모티브를 제공한다. 프란츠와 스와닐다는 다른 전개를 이끌게 되고, 그 전개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은 결국 관객들에게 흥미요소로 제공된다. 또한 코펠리우스는 마을 사람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기 보다는 인형에 생명을 불어 넣기 위해 제작에 몰두하며 집안에만 운둔해서 사는 인물이지만 코펠리아를 만듦으로써 프란츠-코펠리아, 프란츠-코펠리우스, 코펠리아-스와닐다, 스와닐다-코펠리우스, 프란츠-스와닐다의 관계를 생성, 확장시킨다. 구축된 관계를 통해 주인공들은 사랑과 질투, 심술 등의 감정을 유발하게 되며 이러한 감정은 이야기 흐름의 촉매제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희극요소로의 대상화이다. 스와닐다는 코펠리우스 박사를 골탕 먹이기 위해 자신이 코펠리아로 변장하는데, 이는 코펠리우스가 스와닐다에게 속아 조롱거리가 되고 아끼는 코펠리아가 해체되는 수모를 겪는 상황을 연출하며, 희극발레의 면모를 보여주게 된다. 이로 인해 코펠리우스가 작품의 중심에 놓이게 되지만 그 동안 클래식 발레의 주인공들이 멋있고, 아름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며 그의 행동은 '바보짓'으로 비유된다.²²⁾

결국 자신이 창조한 완벽한 여인이 허상이었음을 깨닫고, 허탈해하는 모습은 관객으로 하여금 오히려 통쾌함을 안겨주기 보다는 동질감을 유발시킨다. 이소림(2007)은 발레에 등장하는 코펠리우스가 소설 속의 악마적 인물 코펠리우스와 교수 스팔란치의 특성을 혼용한 인물이며, 소설과는 달리 발레에서는 희극적인 인물로 묘사되지만 그의 집착과 엉뚱한 고집을 강조시킴으로써 원작의 광기적 모습과 일치시키고자 한 호프만의 의도가 그대로 발레 작품 안에 드러나 있는 부분이라고 말한다.²³⁾

나. 드러셀마이어(Drosselmeyer)의 역할

호프만의 소설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 대마 왕』에서 비상한 능력을 소지한 드러셀마이어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중적 인물로서 발레 「호두까기 인형」에서는 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전체적인 작품을 이끌어 나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호두까기인형」에서 드러셀마이어는 분위기 전환자이자 복선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떠들썩하고 흥겨운 크리스마스 파티는 남녀 군무로 연출되는데, 이러한 분위기는 드러셀마이어의 등장으로 인해 전환된다. 그의 등장으로 인해 파티의 중심은 드러셀마이어로 바뀌게 된다. 그는 파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아이들은 그의 등장에 기뻐한다. 특히 그가 보여주는 마술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그의 마술쇼는 2막에서 펼쳐질 환상 속의 장면이 펼쳐질 것이라는 전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²⁴⁾

두 번째로 이야기의 인도자 역할을 한다. 클라라가 맞는 크리스마스 이야기로 그녀의 대부 드러셀마이어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호두까기 인형을 선물 받는데 파티가 끝나고 잠이 든 클라라는 꿈을 꾸다. 꿈속에서 호두까기 인형은 왕자로 변하고, 왕자는 클라라를 데리고 환상의 나라로 여행을 시작한다. 드러셀마이어의 선물인 호두까기 인형은 클라라와 프란츠 사이에서 큰 갈등을 유발시키지만 후에 이 인형은 클라라를 환상으로 인도하는 파트너가 된다.

22) 잭 앤더슨(1986), 『발레, 현대무용』, 서진은·허영일(역)(서울: 도서출판 삶과꿈, 1996), p.110.

23) 이소림(2007), T. A. 호프만의 소설 『모래인간』과 N. 드 발로아의 발레 〈코펠리아〉 비교 고찰: 자동인형 모티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49.

24) 앞의 글, p.14.

세 번째로 다양한 능력을 갖는 비범한 인물의 역할이다. 마술을 부리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기도 하는 그는 고장 난 호두까기 인형을 고쳐주기까지 한다. 어른들은 그의 능력에 호의를 지니고 있으며, 아이들은 그의 능력에 존경과 동경을 갖고 있다. 드러셀마이어의 이미지는 신비한 현자로 길고 큰 검은 망토와 애꾸눈 가리개, 등장할 때 뿌러지는 반짝이가 그 존재에 어울리는 연출을 도와주고 있다. 신사형 모자와 지팡이 잘 갖춰진 양복은 그가 신분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사탕과 선물을 나눠주는 것으로 볼 때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노인임을 짐작하게 한다.

IV. 결론

이 연구에서는 서양문화사 안에서 노인에 대한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코펠리우스」의 코펠리우스와 「호두까기 인형」의 드러셀마이어를 중심으로 발레작품 안에서 표상되는 노인 이미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그 결과 코펠리우스와 드러셀마이어 모두 전형적인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두 노인이 표상되는 지점은 달랐으며 그 다른 지점은 노인문화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노인에 대한 이중적 시선이 각각 드러나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코펠리우스의 경우 깊게 패인 주름과 백발, 굽은 어깨와 허리, 불안정한 신체 움직임(비틀거림, 휘청거림, 들쭉거림, 엉거주춤, 오종종한 걸음, 벌벌 떠는 손, 허리를 두드림)과 같은 신체 움직임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그는 사건의 제공자이자 관계 형성의 매개자이며, 희극요소로의 대상화가 되는 역할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늙음은 전통적인 노인에 대한 인식 중 세상과 소통되지 못한 노인에 대한 비하와 조롱의 시선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드러셀마이어 또한 패인주름과 백발을 지니고 있지만 그의 신체움직임은 코펠리우스와 상반된다. 그의 노화는 경의의 대상이 되며, 그가 지니는 역할은 분위기 전환자이자 복선을 제공하는 인물, 이야기의 인도자이며 다양한 능력을 지닌 비범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모습은 노인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 중에 존경과 신의를 얻고 있으며, 경험과 지식을 통해 통찰력을 지닌 조연자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드러셀마이어가 그려진 것이다.

이것으로 볼 때 코펠리우스와 드러셀마이어는 노인에 대한 이중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두 인물의 외형적 늙음과 갖고 있는 능력은 다른 의미로 전달된다. 코펠리우스의 백발은 늙음과 우둔함이지만 드러셀마이어의 백발은 존경과 옹호의 의미인 것이다. 움직임에 있어서도 코펠리우스의 움직임은 웃음을 자아내고 놀림의 대상이 되지만 드러셀마이어의 움직임은 예우와 주목을 받는다. 결론적으로 발레 안에서 노인역할과 움직임은 노인에 대한 전통적 이중인식이 그대로 표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후속연구로 클래식 작품 안에서의 여성노인과 컨템포러리 댄스에서 나타나는 노인을 연구한다면 보다 풍부한 비교논의가 가능해 질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무용학에서 시도되는 노인연구에 대한 인문예술 자료로 제공 될 것이며, 주인공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작품의 주변인물에 주목하여 보다 깊이 있게 그 작품과 등장인물을 이해하고 재인식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낸시 레이놀드 · 수잔 레이머-톤(1980). 『발레와 현대무용 안무가와 그 작품』. 장정윤·이진수 (역). 서울; 교학연구사, 1986.
- 조르주 미누아(1987). 『노년의 역사』. 박규현·김소라(역). 서울: 아모르문디, 2010.
- 잭 앤더슨(1986). 『발레, 현대무용』. 서진은·허영일(역). 서울: 도서출판 삶과꿈, 1996.
- 질 밸런타인(2001). 『공간에 비친 사회, 사회를 읽는 공간』. 박경환(역).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4.
- 팻 테인(2005). 『노년의 역사-고정관념과 편견』. 안병직(역). 경기도: 글향아리, 2012.
- 남영우(2013). 한국영화 속 노인 이미지 분석: 2000년부터 2010년까지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정은(2013). 컴퓨터 그래픽스를 활용한 디지털 분장 기법에 관한 연구-노인 캐릭터 분장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소림(2007). E. T. A. 호프만의 소설 『모래인간』과 N. 드 발로아의 발레 〈코펠리아〉 비교 고찰: 자동인형 모티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영재(2010). 발레 「호두까기 인형」의 변천에 따른 사회문화적 의미. 『무용예술학연구』 29: 1-26.
- 박영택(2012). 한국 미술 속에 재현된 노인이미지. 『시민인문학』 22: 1-18.
- 성백용(2009). 노년(老年)의 사회·문화사: 중세의 노년에 관한 몇 가지 시각과 문제들. 『서양중세사 연구』 59: 87-121.
- 이소림(2007). E. T. A. 호프만의 소설 『모래인간』과 N. 드 발로아의 발레 〈코펠리아〉 비교 고찰: 자동인형 모티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정재영(2008년 1월 14일). 나는야 88세 발레리노! 영국 로우 할아버지, 생애 첫 발레공연.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08/01/14/20080114000491.html>, 2016.4.30.>.

논문투고일 2016. 11. 15.
심사일 2016. 11. 28.
심사완료일 2016. 12. 8.

Abstract

A Study on the Images of the Aged in Classical Ballet

- Focusing on Coppelius of 「Coppelia」 and Drosselmeyer of 「The Nutcracker」 -

Kim, joohee

Hybrid Institute for Future Culture, Sun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ultural history of the elderly in dance performance by examining the roles and images of the aged in classical ballet works. Dancers, not actual senior citizens, play the roles of the aged in classical ballet works, because a dance performance requires various body movements. Nevertheless, what the ballet performances represent, along with impressions of the aged given by the dancers' movements, costumes, and make-up, space was found as follows.

In conclusion, Coppelius and Drosselmeyer showed movements, and roles opposite to each other. Agedness of Coppelius include images of scorn, and ridicule. Meanwhile, agedness of Drosselmeyer is represented with a respect image. This opposition suggests duplex recognition about the aged.

Keywords: Elderly people(노인), Classical ballet(클래식발레), Senior role(노인역할), Image of the elderly(노인 이미지), Cultural history of the elderly(노인문화사)

